Life-Changing Small Group

목장 모임 인도자가이드

2022. 4. 27. 주일설교 "다시 쓰는 회복 행전" (요한복음 21장 1-14절)

DONGAN CHURCH

말씀 나눔과 적용(Word)

1. 예수님은 우리들의 실패한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당신은 실패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막 2:17)

☞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넘어진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에게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자격이 없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거야!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진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에, 넘어짐에, 실패함에 소망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2: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때없고 병든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2.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노력과 주장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함께 나눠 봅시다. (눅 5:5 신 8:3)

☞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내 생각, 내 경험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갈등에서 나를 꺾고 말씀앞에 나아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써의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삶가운데 일하시며,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눅 5: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신 8: 3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봅시다. (요15:5, 요21:17)

☞ 예수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결국 땅에서 썩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떨어져 있던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면 그 가지는 생명을 얻게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복의 주체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있을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사명도 회복됩니다. 우리들은 목자로써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할 목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굶주려 있는 이들을 먹이고 입혀야 하며, 예수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회복의 주체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 11: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21: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